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11월 6일 월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강원도민일보	01면	2024 청소년올림픽 강원도민 봉업 불 붙었다	1
강원도민일보	11면	바르게살기운동 강릉시협 한마음대회	1
강원도민일보	22면	"자유총연맹 굳건한 안보의식 자유민주주의 정착 기여"	2
강원도민일보	온라인	제1회 원주치악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	2
江原日報	21면	"실용적 학문 추구 허균 선생처럼 우리 사회 변화 큰 역할"	3
江原日報	10면	'사과 완판' 전년보다 매출 100% 경증	3
강원도민일보	06면	'반도체 강소기업' 철원서 제 2의 도약	4
江原日報	14면	황지정산고 한국세무금융고 전환 설명회	4
강원도민일보	09면	제7회 성수인 한마음 걷기대회	4
강원도민일보	14면	평창군 사회복지사 대회	5
江原日報	11면	조성희·연보라팀, 헤어징씨 우승	5
강원도민일보	21면	공유주택·교통비... 청년 제안 한 자리	6
江原日報	13면	고성군축구협회장배 축구대회	6
江原日報	02면	오늘 강원특별법 3차 개정 해양수산 토론회	7
강원도민일보	22면	"강원 시각장애인 점자 문화 발전·교육 창구 마련해야"	7
江原日報	22면	사회복지학과 대학생들이 발굴한 청년정책	8
강원도민일보	온라인	강릉 교1동 나눔 박람회 개최	8
강원도민일보	온라인	평창 고랭지김장축제 성황리 개막	9
강원도민일보	온라인	강릉 포남2동 경로당 리모델링 개소식	9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원제용 강원특별자치도의원(원주)	10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10
강원도민일보	16면	[동정] 김용복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10
강원도민일보	04면	강원지역 절반 이상 1시간 이내 분만·응급실 도착 불가	11
江原日報	01면	오대산사고본 마침내 돌아온다	12
강원도민일보	08면	태백·인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최고 등급' 선정	13
강원도민일보	09면	춘천 호수정원 조성사업 본궤도 오른다	13
江原日報	01면	GTX-B 춘천·원주~철원 내륙철 총력전	14

江原日報	03면	GTX-B 춘천·원주~철원 내륙철 총력전	14
강원도민일보	05면	쌀인 낙엽 배수로 막아 도로 곳곳 '물바다' 시민 불편	15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간호대 정원 확대, 처우 개선 병행 마땅	16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오색케이블카 '경제·환경' 두 토끼 잡길	17
江原日報	19면	[사설] 지자체 잇단 '서울 편입' 선언, 균형발전 수포 되나	18
江原日報	19면	[사설] 글로벌대학, 준비된 도내 대학들이 선정돼야 한다	19

2023 11 06 ()

강원도민일보

2024 청소년올림픽 강원도민 붐업 불 붙었다

01

오늘 대회 성화 도청 입성

내일 속초부터 성화 투어

조직위-시군구청장협 협약

전국적 관심·열기 고조 시동

전국민적·전도민적 붐업 조성을 본격화하는 것이 최대과제다.

지난달 그리스에서 채화돼 전국 5개 광역도시 투어를 마친 2024 강원대회 성화는 6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에 입성한다. 도청 내 분수공원에서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회의장, 신경호 교육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행사로 열기를 고조시킨다.

도내 성화투어는 7일 속초 설악고를 시작으로 12월 28일까지 영월 석정여중, 동해 묵호중, 태백상장중 등 도내 18개 중·고교의 학생 및 청소년 스포츠 선수 등 약 80여 명이 접화자로 참여한다. 내년 1월 중에는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특별투어'도 예정됐다.

2024 조직위는 붐업 활동에 가속도를 붙였다. 조직위는 지난 3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와 서울포시즌스호텔에서 각각 '2024 강원 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언론 간담회 및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붐업 열기를 끌어올렸다.

진중오 조직위원장은 "2024 강원대회는 청소년대회인 만큼, 안전 및 흑한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꼼꼼히 준비하고 있다"며 "경찰, 소방, 민간 경비 등 보안인력은 1700여 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회 입장권은 오는 11일 11시 11분부터 'ticket.gangwon2024.org'를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모든 경기 및 폐회식은 무료, 강릉에서 개최되는 개회식만 유료로 운영된다.

모든 경기 및 폐회식은 무료, 강릉에서 개최되는 개회식만 유료로 운영된다. 2024 강원대회는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강릉·평창·횡성·정선 4곳에서 열린다. 이세훈·김덕형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밝힐 성화가 6일 강원특별자치도에 입성, 2024 강원대회 붐업을 위한 전 도민적 열기가 결집된다.

2024 강원동계청소년 올림픽이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동계 스포츠 유망주들이 꿈을 키우는 2024 강원대회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도내에서 열리는 메가스포츠 이벤트다. 특히, 2024 강원대회는 현 정부 임기에서 치러지는 유일한 국제스포츠 대회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만나 2024 강원대회 성공개최 지원을 요청했다. 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강릉과 평창 등을 연이어 찾아 대회시설 등을 현장 점검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 사격이 계속되고 있다.

2024 강원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강원특별자치도와 2024 강원동계청소년 올림픽 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진중오·이상화) 차원의 준비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제부터는 2024 강원대회에 대한

강원도민일보

2023 11 06 ()

11



바르게살기운동 강릉시협 한마음대회 바르게살기운동 강릉시협의회 한마음대회가 5일 단오공원에서 김홍규 시장, 권혁열 도의장, 김기영 시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3 11 06 ()

강원도민일보

22

“자유총연맹 굳건한 안보의식 자유민주주의 정착 기여”

강릉서도 한마음 체육대회
전·현직 도회장 임명장·공로패 수여
회원 단합 나라 발전 노력 다짐



한국자유총연맹 강원특별자치도 한마음 체육대회가 5일 강릉 강남체육관에서 18개 시·군 7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국자유총연맹 강원특별자치도 한마음 체육대회가 5일 강릉 강남체육관에서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김홍규 시장, 권혁열도의회장, 김기영 시장의 장, 정일섭도 글로벌본부장, 김영준 자유총연맹도지부장, 박철근 강릉시지회장을 비롯한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자유수호 결의와 회원간 단합을 위해 갖은 이날 체육대회에서 강 총재는

자유총연맹 전·현직 도회장에게 임명장과 공로패를 수여했다.

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과 권혁열 도의장에게 감사패를, 김홍규 시

장과 김기영 시장의에게는 자유장을 각각 전달했다.

우천으로 실내체육관에서 행사를 가진 이날 체육대회에서 회원들은 노래

자랑 등 자기자랑과 행운권 추첨 등의 경품행사가 진행됐다.

김홍규 시장은 환영사에서 “굳건한 안보의식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뿌리내리도록 하는데 기여한 회원들의 나라사랑 활동에 감사를 보낸다”며 “평화의 소중함을 대내외에 더욱 알려나가자”고 말했다.

강석호 총재는 “밖으로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 안으로는 북한의 핵 실험, 미사일 발사 위협 등 안보위기로 국민 불안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며 “이렇듯 69년간 자유수호를 위해 활동한 회원들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를 더욱 튼튼히 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홍성배

2023 11 05 ()

강원도민일보

제1회 원주치악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

이기영

제1회 원주치악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4, 5일 이틀간 원주양궁장에서 유소년 선수단 300여명이 출전한 가운데 열렸다. 첫날 열린 개막식에는 김태훈 부시장, 송기현(원주을) 국회의원,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 정동기 시 체육회장, 김병지 강원FC 대표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 제1회 원주치악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4, 5일 이틀간 원주양궁장에서 유소년 선수단 300여명이 출전한 가운데 열렸다. 첫날 열린 개막식에는 김태훈 부시장, 송기현(원주을) 국회의원,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 정동기 시 체육회장, 김병지 강원FC 대표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mod1600@kado.net

“실용적 학문 추구 허균 선생처럼 우리 사회 변화 큰 역할”

허균문학작가상 시상식
최은미 작가 수상 영예

‘제15회 허균문학작가상 시상식’이 지난 4일 강릉 허균하년설현기념공원에서 교산 허균문화제 개막식과 함께 열렸다.

강원일보와 (사)교산·난설현선양회가 주최한 이날 시상식에서 소설 ‘마주’를 쓴 최은미 작가가 허균문학작가상을 수상해 상패 및 1,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순원 심사위원장은 심사평에서 “실용적 학문으로 조선사회의 변화를 추구한 허균 선생처럼 소설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수상자의 작품은 코로나가 유행할 시기 인간의 관계 회복을 이끄는 감동을 주고 정교한 서사가 돋보였다”고 말했다.

최은미 작가는 수상 소감에서 “제문학적 정서의 바탕이 되어주는 강원



◇제15회 허균문학작가상 시상식이 지난 4일 강릉 허균하년설현기념공원에서 수상자인 최은미 작가, 권무열 교산난설현선양회 이사장, 우승룡 강원일보 강릉본부장, 최승순·김용래 도의원, 김진희 권성동 국회의원 부인, 김은희 김홍규 강릉시장 부인, 박수영 (재)허준문화진흥재단 이사장, 이순원 심사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릉=권태명기자

도에서 상을 받게 돼 더 기쁘고, 수상을 계기로 소설과 문학이 가진 힘과 아름다움을 생각하며 꾸준히 오래 쓰는 작가가 되겠다”고 했다.

우승룡 강원일보 강릉본부장은 “허균문학작가상이 해를 거듭할수록 수

준 높은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돼 기쁘다”며 “수상자들이 이 상을 통해 그들의 글과 말에서 허균 선생과 강릉의 이름을 더욱 드높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무열 교산난설현선양회 이사장

은 “허균 선생은 시대를 앞서가신 불멸의 선각자이자 문학자, 개혁적인 사상가였다”며 “앞으로도 선양회가 교산 허균의 원대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허균문화제는 문학작가상 시상식을 시작으로 5일까지 교산허균 전국 글짓기, 학술세미나, 인형극 공연, 별빛 음악회, 술밭 들차회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이어졌다.

허균문학작가상 시상식에는 김용래·최승순 도의원, 김진희 권성동 국회의원 부인, 김은희 김홍규 강릉시장 부인, 김홍수·신보금 시의원, 박수영 (재)허준문화진흥재단 이사장, 함영희 교산난설현선양회 초대이사장, 박영복 전 교산난설현선양회 이사장, 허세광 양천하씨강릉중종회장, 허병길 성균관 유도회 강릉지부 회장, 권우태 강릉향교 전교, 장정룡 교산난설현학회장, 이우임 강릉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순원 심사위원장, 김도연 소설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강릉=최영제기자

‘사과 완판’ 전년보다 매출 100% 꺾충

사흘간 홍천사과축제 성료
24개 재배농가 품종 판매
체험·전시 등 관람객 호평

【홍천】‘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를 슬로건으로 새콤달콤 향긋한 향기로 가득한 제8회 홍천사과축제가 5일 폐막했다.

이번 축제는 홍천군과 (재)홍천문화재단의 주최로 지난 3일부터 사흘간 홍천도시산림공원 토리숲에서 진행됐다. 축제 첫날 열린 오픈행사에는 신영재 홍천군수, 박영록 홍천군 의장, 최이경 군의회 부의장, 이영욱·홍성기 도의원, 김성운 홍천경찰서장, 전명준 홍천문



◇홍천군과 (재)홍천문화재단(이사장: 전명준)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홍천도시산림공원 토리숲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를 슬로건으로 새콤달콤 향긋한 향기로 가득한 제8회 홍천사과축제를 개최했다.

화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행사를 위해 준비한 사과 물량이 완판되는 등 전년 대비 매출 100% 상승을 기록하며 마무리됐다. 홍

천사과의 우수성을 알리고 무대공연, 사과 길게 깎기, 사과 쪄개기 등 다양한 이벤트가 함께 마련됐다. 체험 및 홍보 프로그램에서는 홍천사과 품

종 전시회를 비롯해 사과요리 작품 전시, 야생화 전시회, 전통주 및 사과와인 시음, 떡메치기 체험, 드론축구 체험 등이 운영되며 방문객에게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사과축제에는 24개 재배농가가 참여해 시나노골드 등의 품종을 판매했다.

전명준 홍천문화재단 이사장은 “긋은 날씨에도 축제장을 방문해 즐겨주신 관광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사과 판매에 참여한 지역 농가들에게도 사과 생산량 저하 우려 속에도 끝까지 축제 기간 최고의 품질, 맛, 가격 등으로 사과를 판매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반도체 전문기업인 인포비온 철원공장 준공식이 최근 철원군 동송읍 동송농공단지 현장에서 개최됐다.

‘반도체 강소기업’ 철원서 제 2의 도약

인포비온 철원공장 준공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소재 산업을 이끌어 가는 인포비온(대표 김용환)이 최근 철원에 반도체 공장을 준공,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인포비온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최고의 플라즈마 응용 기술을 보유한 EUV 반도체 강소기업으로 철원 플라즈마 연구원의 장비와 기술 협력을 위해 철원군 동송농공단지에서 철원 공장을 준공하고 지난 3일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 인포비온 철원공장 준공으로

플라즈마 나노 기술을 기반으로 고집적 반도체 개발에 필수적인 웨이퍼 소재, 내플라즈마성 부품, 다기능 패키징 소재 개발 등 반도체 원소재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용환 인포비온 대표는 “반도체와 첨단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제 2의 도약을 위해 철원 공장을 준공하게 됐다”며 “앞으로 철원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인포비온 준공식에는 이현종 철원군수, 한기호 국회의원, 박기준 철원군의회장, 엄기호 도의원, 황명근 철원 플라즈마 산업 기술 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용

황지정산고 한국세무금융고 전환 설명회

【태백】강원특별자치도형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황지정보산업고(교장:이인희)가 6일 오후 7시 태백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국세무금융고(가칭)로 전환을 앞두고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는 신경호 강

원특별자치도교육감, 이상호 태백시장, 고재창 태백시의장, 심재성 태백교육장, 이한영·문관현 도의원, 정미경 학교운영위원장, 박만희 총동문회장, 이혜진 학부모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김광희기자 kw635@



제7회 성수인 한마음 걷기대회 성수고 총동문회(회장 유병우)는 지난 4일 노용호·허영국회의원, 김희철 도의원, 김보건 춘천시의원, 성수고·성수여고 동문 100여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7회 성수인 한마음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평창군 사회복지사 대회 평창군사회복지사협회(회장 김미숙)가 주관하는 평창군 사회복지사 대회가 지난 3일 컨싱턴호텔 평창 그랜드볼룸에서 심재국 군수, 심현정 군의장과 군의원, 지광천·최종수 도의원 등 100여명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조성희·연보라팀, 흐어징씨 우승

<한국> <중국>

본보 주최 원주서 열려
韓 15팀 中 7팀 참가
구련옥·마담로즈 공연



◇2023한중청년교류가요제가 지난 4일 원주동부복합체육센터에서 박진오 강원일보사장, 김태훈 원주부시장, 신경숙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이사장, 임흥근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장, 김윤수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강원지회장 등 내빈들과 한·중 청년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원주=박승선기자

조성희·연보라(한국) 팀과 흐어징(중국)씨가 '2023 한중 청년교류 가요제'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4일 원주 동부복합체육센터 공연장에서 열린 행사에서 한국과 중국 청년들은 화합과 소통의 하모니를 선사했다.

강원일보사가 주최하고 (사)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강원지회가 주관, 원주시, 강원자치도의회, 주한중국대사관, (사)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가 후원한 행사에는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원제용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김태훈 원주부시장, 박창호 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신경숙 이사장, 임흥근 회장, 김윤수 강원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20면

이날 가요제에는 한국 15팀, 중국 7팀 등 총 22팀이 참가했으며 심사 결과 조성희·연보라 팀과 흐어징씨가 각각 최우수상과 상금 150만원을 받았다. '중국 주현미'로 불리는 재중동포 가수 구련옥과 신촌블루스 마담로즈(기타리스트 이은근)의 축하무대도 펼쳐져 즐거움을 선사했다.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은

"그동안 양국에 의해 우호증진의 미명 하에 튼튼한 초석을 마련했다면 이제는 민간 중심으로 교류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가요제가 미래지향적인 한중 관계의 새 지평을 여는 튼튼한 동아줄이 되길 소망한다"고 했다.

김태훈 부시장은 "강원 제일의 경제도시 원주가 이제는 문화·예술 중심 도시로 도

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중 청년교류 가요제가 원주 문화의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윤수 강원지회장은 "양국의 문화를 알고 홍보하는 가요제에 함께한 참가자들이 한 단계 발전하고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원주=김설영기자

강원도민일보

공유주택·교통비... 청년 제안 한 자리

21

도여가원 주최 청년정책 발표회
대상에 한라대 김예희 등 3명
이동권 개선 방안 제시해 호평
1인거주·일자리 사업 등 다채



도여성가족연구원(원장 김숙영)은 3일 연구원에서 '청년이 만드는 살만한 세상 청년만세' 공모전 정책 발표회를 개최했다.

강원지역 청년들이 직접 정책 당사자
로 나서 청년 정주환경 마련을 위한 이
동권, 1인 거주 문제 등 다채로운 개선
책을 쏟아내 주목된다.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
(원장 김숙영)은 지난 3일 연구원에서
김숙영 도여성가족연구원장과 진영호
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정재웅 도의
회 사회문화위원장, 이경희 도청 복지
보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이
만드는 살만한 세상 청년만세' 공모전
정책발표회를 열었다.

강원대·한림대·한라대 등 최종 8팀
의 대학생들이 정책을 발표한 결과, 한
라대 김예희·전나연·진재화 학생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이들은 '강원도 청년 교통비 지원을
위한 이브카드 (Easy Move Card) 사
업'을 주제로 청년의 이동권 개선방안
을 제시했다. 또 △최우수상 '1인 가구
청년층 은둔형 외톨이 세어하우스 공

간조성(한림대 윤보영·장진원·김민
정·백민경)' △우수상 '청업 청년의도
정주를 위한 주거지원사업(한림대 이
유건·허진·송상원·최우석)' △장려상
'청년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위
한 제3의 공간 지원사업(한림대 전유
경·이다혜·정민주)'·'원주시 청년들
의 문화생활 증진을 통한 지역정착 프
로그램(한라대 신민철·김유진·박헌
성·정의석)'이 각각 선정됐다.

이외에도 △청년교육 및 커뮤니케
이션 활동 공간 지원사업 △청년 번아웃
예방 극복 워라밸 정책 △도 공무원 준
비 청년의 직장 정착도 향상 직무경험
지원사업 등의 아이디어도 눈길을 끌
었다. 이다혜 학생은 "청년을 위한 정책
은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정민주 학생은 "청년 정
책 대부분 저소득층을 위한 것으로 모
든 청년을 위한 정책을 찾기 쉽지 않았
다"고 했다. 김민정 학생은 "공모전을
준비하며 강원도 청년 정책이 부족하
다는 것을 알게 돼 앞으로 더욱 관심 갖
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영호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안희
정 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개발부장,
최영민 도 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
김병년 연성대 사회복지경영학과 교수
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김숙영 원장은 "정책공모전을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는 내년 기관의 연구
과제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
고 밝혔다. 강주영

江原日報

13



고성군축구협회장배 축구대회 제50회 고성군축구협회장배 축구
대회가 지난 4일 거진공설운동장에서 지승섭 부군수를 비롯한 김일용 군
의장, 김용복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곽상규 고성군체육회장, 박재근 고
성군축구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江原日報

2023 11 06 ()

02

오늘 강원특별법 3차 개정 해양수산 토론회

도립대 창의혁신커뮤니티센터

강원특별자치도와 18개 시·군, 강원일보사는 6일 오후 2시 강원도립대 창의혁신커뮤니티센터에서 강원 자치도 특례·권한 확대를 위한 ‘강원 특별법 3차 개정 해양수산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해양수산업 발전 전략’을 주제로

강원특별법에 추가 반영이 필요한 해양수산 분야 특례를 집중 논의한다.

김중재 강원연구원 분권연구실장의 발제에 이어 김인호 강원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부연구위원, 조광운 강릉시수산업협동조합장, 김학소 청운대 교수, 강정호 도의회 농림수산위원, 이동희 강원자치도 수산정책과장이 토론을 벌인다. 최기영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11 06 ()

22

“강원 시각장애인 점자 문화 발전·교육 창구 마련해야”

한글점자의 날 기념식·점자페스티벌

한글 점자 탄생 97주년을 맞아 강원지역 시각장애인들이 점자 문화 발전과 교육 창구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원점자도서관(관장 이판구)은 지난 3일 춘천베어스호텔에서 ‘점자로 여는 희망과 성취’라는 슬로건 아래 ‘제97돌 한글점자의 날 기념식 및 제4회 점자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송암 박두성 선생이 6개의 점자로 한글을 표기하는 한글 점자를 창안한 업적을 기념하는 점자의 날(11월 4일)을 하루 앞두고 열린 이날 자리에는 도내 시각장애인 200여 명과 정재웅 도의회 사회문화위



강원점자도서관은 지난 3일 춘천베어스호텔 컨벤션홀에서 ‘제97돌 한글점자의 날 기념식 및 점자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원장, 박광용 도문화예술과장, 이정식 도장애인단체연합회장, 김흥수 도지체장애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점자 발전에 기여한 박용숙·임종숙 씨가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강주영

사회복지학과 대학생들이 발굴한 청년정책

道 주최 강원대·한림대·한라대 7개팀 참여 정책발표회

강원지역 사회복지학과 대학생들이 직접 지역 청년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열렸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도여성가족연구원(원장:김숙영), 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진영호)가 공동 주관한 '지역협력사업 청년정책 개발 청년만세(청년이 만드는 살만한 세상)' 정책발표회가 지난 3일 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 열렸다.

발표회는 강원대, 한림대, 한라대 등 도내 3개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7개팀, 60여명의 대학생이 저출산 고령화 예방, 지역소멸 극복 및 청년 정

주여건 개선을 위해 발굴·기획한 정책을 발표하고 심사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심사 결과 대상은 '청년 교통비 지원을 위한 이브카드사업'을 발표한 한라대 김예희·전나연·진채화 학생팀이 선정됐다. 도여성가족연구원은 대상을 수상한 아이디어에 대해 2024년 연구과제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정책발표회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재웅(사회문화위원장)·박관희 의원, 이경희 도 복지보건국장, 진영호 도사회복지사협회장, 김숙영 도여성가족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재웅 사회문화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강원도 정주여건 강화를

위한 '청년만세' 정책발표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번 발표회를 계기로 청년들이 몰려드는 역동적인 강원자치도가 되기를 바란다.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도 청년 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함께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김숙영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장은 "도내 청년들의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 정책 개발에 대해 민관학 협력업체가 공동 참여해 의의가 크다"며 "이번 정책공모전을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를 내년도 연구과제로 연속성 있게 환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청년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강동휘기자 yulnyo@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강릉 교1동 나눔 박람회 개최

홍성배

강릉시 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복순·윤용녀)주관, 제5회 교1동 나눔 박람회가 최근 교1동주민자치센터에서 김기영시의장, 심오섭 도의원, 최익순·윤희주·김현수 시의원을 비롯한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강릉시 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복순·윤용녀)주관, 제5회 교1동 나눔 박람회가 최근 교1동주민자치센터에서 김기영시의장, 심오섭 도의원, 최익순·윤희주·김현수 시의원을 비롯한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sbhong@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 11 06 ()

평창 고랭지김장축제 성황리 개막

12일까지 수육 등 먹거리 풍성

제6회 평창 고랭지김장축제가 지난 3일 오전 진부면 평창송어축제장 시설하우스에서 심재국 군수, 심현정 군의장과 군의원, 최종수 도의원, 최기성 축제위원장, 김청 축제 홍보대사, 방송인 황범식 씨, 지역의 각급 기관 단체장과 주민, 김장체험 참가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갖고 본격적인 축제에 들어갔다.

이날 개막한 축제는 오는 12일까지 열흘동안 계속되며 올해 김장 가격은 배추김치 10kg에 6만원, 20kg 11만5000원, 알타리무 김치는 7kg에 6만7000원이다. 축제 첫날부터 축제장에는 고랭지 김치를 담그려는 참가자들의 행렬이 이어져 성황을 이뤘고 편안히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는 축제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참가하면 된다.

김장축제와 함께 줌바피트니스 페스티벌, 공연과 떡메치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고 지역 농특산물판매장에서 우수한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지역산 수육과 특산 메밀차, 감자전 등 풍성한 지역 먹거리도 맛볼 수 있다. 심현태

강원도민일보

2023 11 05 ()

강릉 포남2동 경로당 리모델링 개소식

홍성배

강릉시 포남2동 경로당 리모델링 개소식이 지난 4일 경로당 현지에서 심재빈 강릉시 노인회장, 이삼용 포남2동 노인회장, 최승순 도의원, 박경남·김영식·권순민 시의원, 이정순 포남2동장을 비롯한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강릉시 포남2동 경로당 리모델링 개소식이 지난 4일 경로당 현지에서 심재빈 강릉시 노인회장, 이삼용 포남2동 노인회장, 최승순 도의원, 박경남·김영식·권순민 시의원, 이정순 포남2동장을 비롯한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sbhong@kado.net

2023 11 03 ()

江原日報**[동정]원제용 강원특별자치도의원(원주)**

원제용 강원특별자치도의원(원주)은 4일 오후 3시 원주 동부복합체육센터 공연장에서 열리는 '2023 한중 청년교류 가요제' 개최식에 참석.

2023 11 05 ()

江原日報**[동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용복(고성)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은 6일 오전 8시 고성군 용암1리·용암2리에서 열리는 고성군 정부 비축미 수매현장에 참석.

심오섭(강릉) 도의회 사회문화부위원장, 최승순(강릉) 도의원은 6일 오후 3시 강릉화폐전시관에서 열리는 강릉화폐전시관 개관식에 참석.

강정호(속초) 도의원은 6일 오후 2시 강원도립대 창의혁신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리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한 해양수산 분야 토론회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3 11 06 ()

16



김용복도
의회농림
수산위원
장은 6일
오전 8시

고성군 용암1리·2리
에서열리는고성군정
부비축미수매현장에
참석한다.

2023 11 06 ()

강원도민일보

04

강원지역 절반 이상 1시간 이내 분만·응급실 도착 불가

전국 지자체 43% 분만 취약지
인제·정선·평창·화천 'A등급'
도내 15곳 응급의료 취약 '심각'

도내 분만취약지 현황

A등급 인제, 정선, 평창, 화천

B등급 고성, 양양, 횡성

C등급 삼척, 속초, 양구, 영월, 철원, 태백, 홍천

도내 응급의료취약지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화천군, 홍천군, 횡성군

강원도내 대부분 시군이 분만이나 응급 의료 처치를 받을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운 의료취약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립중앙의료원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2022년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5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분만 의료에 대한 접근성 취약도, 의료이용 취약도를 분석한 결과 43.2%인 108곳이 분만 의료취약지로 분류됐다.

강원의 경우 인제·정선·평창·화천 등 4개 지역이 가장 취약한 A등급, 고성·양양·횡성 등 3개 지역이 B등급, 삼

척·속초·양구·영월·철원·태백·홍천 등 7개 지역이 C등급으로 18개 시군 중 14개 시·군이 분만 취약지로 지정됐다.

의료원은 15~49세 가임인구 중 △분만실에 60분 이내에 접근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30%를 넘을 때 △분만실 이용자 중 분만실에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60분 이내인 경우가 30% 미만일 때 의료이용이 취약하다고 봤다. 두 기준 모두 취약한 경우 A등급, 한 가지만 취약한 경우 B등급, 또 A·B등급은 아니지만 배경인구, 수요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분만실 운영이 어려운 지역을 C등급으로 분류했다.

또한 응급의료센터 도달 시간 분석해 250개 시군구 중 39.2%인 98곳을 응급의료 취약지로 분류했다. 응급의료취약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지역응급의료센터에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가 3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도내에서는 원주·춘천·강릉을 제외한 15개 시·군이 여기에 포함, 전남(17곳), 경북(16곳)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시·군이 응급의료취약지로 지정됐다. 김정호

2023 11 06 ()

01

江原日報

오대산사고본 마침내 돌아온다

道·본보 9~11일 조선왕조실록·의궤 환지본처 기념행사
평창군청·월정사 등지서 이운 행렬·박물관 개관식 이어져

"110년만의 귀향"

일제의 약탈에 의해 일본으로 무단 반출됐던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가 110년 만에 귀향 길에 오른다.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 범도민환수위원회(이하 범도민 환수위)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월정사, 강원일보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등과 함께 실록과 의궤의 환지본처(還至本處)를 알리는 기념 행사를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오대산사고 등 월정사 일원에서 다채롭게 선보인다. ▶상보 7일자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는 일제강점기인 1913년과 1922년 일제의 계략 속에 고향 땅을 떠난다.

1980년대 학계와 불교계에서 오대산사고본 실록·의궤 잔본의 실재(實在)를 일본에서 확인하면서 월정사 등 민간을 중심으로 한 환수운동이 펼쳐져 2006년과 2011년에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는 환국에 성공한다. 하지만 보관 장소는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최종 결정된다. 이같은 조치에 실록과 의궤는 원소장처인 오대산으로 모셔와야 한다는 의견이 들불처럼 일어났고, 2021년 월정사와 강원일보 등이 주축이 돼 범도민 환수위를 출범시켜 다시 한번 문화재

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개관식으로 빛을 보게 됐다.

환지본처 기념 행사는 9일 오후 2시 평창군청에서 '평창군 보관식 재연 행사'로 시작된다. 다음 날인 10일 오후 2시 오대산문에서 전나무 숲길을 거쳐 월정사까지 이어지는 '이운 행렬 재연 행사'를 펼친 데 이어 오후 4시30분 월정사경내 특설무대에서 기록 문화도시 평창 선포식을 거행한다. 이어 11일 오전 10시 오대산사고에서 우리 문화재의 귀향을

알리는 '환지본처 고유제'를 봉행하고 오후 2시 박물관 개관식에 이어 오후 5시부터는 월정사 대법륜전에서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 활용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퇴우정남 월정사 주지스님은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의 환지본처는 민족 혼의 회복, 새로운 역사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며 "오랜 시간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돌아오게 되는 만큼 많은 분의 관심과 성원,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오석기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11 06 ()

08

태백·인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최고 등급' 선정

행안부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

춘천·원주를 제외한 도내 인구감소·관심지역 16개 시·군이 행정안전부 평가 결과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1084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올해 1064억원보다 20억원 늘어난 것이다. 태백시와 인제군은 최고 등급인 S등급에 선정돼 각각 144억원·36억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금액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강원도내에서는 태백시와 인제군이 최고 등급인 S등급에 선정돼 각각 144억원·36억원을 받는다. 평창군·화천군은 A등급을 받아 각각 112억원을 확보했다. S등급은 전국에서 5곳, A등급은 전국에서 15곳만 선정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 등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난 2022년 신설된 정부 예산이다. 연간 1조원 규모로 광역 단체 15곳(서울·세종 제외)에 2500억원(25%), 기초 단체(인구감소·관심지역 107곳)에 7500억원(75%)을 배분한다. 광역단체는 인구

감소지정 비율 등 정액 배분하며 기초 단체는 투자계획서에 기반해 4개 등급 별로 나눠 지원한다.

도는 각 시·군을 대상으로 담당자 워크숍, 투자계획서 전문가 컨설팅, 대면 평가 사전 컨설팅 등을 진행해 도내 배분액 확대를 이끌어냈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를 배분한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기금을 성과 중심으로 운영해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덕형

강원도민일보

2023 11 06 ()

09

춘천 호수정원 조성사업 본궤도 오른다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도 지방정원 공모 조건 확보 시, 사유지 보상협의 본격화

속보=춘천 호수정원 조성사업이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본지 11월 3일 웹보도)를 통과,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정원 선정에 파란불이 켜졌다.

춘천시는 호수정원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고 지난 3일 밝혔다. 춘천호수정원 조성사업은 상중도 내 16만 8000㎡ 부지에 총사업비 297억 원을 들여 다양한 동·식물을 보존하며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질 수 있는 생태친화주의 정원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상중도에는 친수공간과 습지 식물을 활용한 습지정원, 낙조경관을 볼 수 있는 의암정원, 시민참여형 정원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개방형 수변 전망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정원도 검토 중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이양사업 지방정원 선정 조건 중 하나인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춘천 호수정원 조성사업 추진도 본궤도에 오른다. 도 지방이양사업 지방정원 사업에 선정되면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도비 39억 원을 받게 된다. 현재까지 이 사업에는 도내 6개 시·군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자 춘천시는 호수정원 조성 부지 가운데 사유지 1만 5000여㎡에 대한 토지구별 의견을 청취하고 토지보상 협의에 돌

입했다. 내년 본격적인 토지 보상과 함께 실시설계 용역,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 절차를 순차 이행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시는 오는 2025년까지 상중도 일원 3ha에 산림청 정원소 재실용화센터도 구축해 지방정원에 대한 기반을 조성한다. 시는 호수정원 조성에 대한 사계절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홍보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춘천만의 특색있는 호수정원 조성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이승은

江原日報

2023 11 06 ()

01

GTX-B 춘천·원주~철원 내륙철 총력전

제5차 국가철도망 각축전 돌입
道 경원선 전철화 등 최우선 추진

내년 2월부터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한 전국 광역지자체간 치열한 경쟁이 시작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춘천 연장, 원주~춘천~철원 내륙철도, 경원선(연천~철원) 전철화 사업 등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지자체

간 각축전에 뛰어들 준비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 국가철도망 계획에 신규 반영할 일반철도 사업, 5월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에 대해 지자체별 건의를 받는다. 국토부는 자체 검토를 거쳐 2025년 5차 국가망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내년으로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올 8월 '강원 철도 SOC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 각 사업별 당위성, 필요성 등을 분석 중이다. 강원지역 후보사업은 10개가량 거론되지만 최우선 사

업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춘천 연장, 원주~춘천~철원 내륙철도, 경원선(연천~철원) 전철화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기영기자

3면에 계속

江原日報

2023 11 06 ()

03

GTX-B 춘천·원주~철원 내륙철 총력전 -1면에서 계속

GTX-B 춘천 연장 여부는 올 연말 발표될 가능성이 있지만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야만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만약 국가망 계획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강원자치도와 춘천시, 경기지역 지자체가 사업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총 사업비는 최대 4,238억원으로 추산된다. 원주~춘천~철원 내륙철도는 연장 120km로 총 사업비가 2조9,000억원에 달해 강원 지역 신규 사업 후보군 중 최대 규모로 꼽힌다. 매년 사업 확정 문턱에서 고배를 마셨으나 윤석열 정부 공약사업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경원선(연천~철원) 전철화 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

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됐으나 5차 계획에서는 신규 중점사업 확정을 노린다. 경기도와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철원군이 자체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B/C(비용대비편익)이 1.01로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장은 20.6km, 총 사업비는 551억원가량이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10년 단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철도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2021년 확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용문~홍천 광역철도, 삼척~강릉 동해선 고속화, 삼척해변~동해항 동해신항선, 원주~민중간 원주연결선 등 4개 철도노선이 신규 추진 사업으로 반영됐다.

2023 11 06 ()

강원도민일보

05

쌓인 낙엽 배수로 막아 도로 곳곳 ‘물바다’ 시민 불편

춘천 기슭소나기에 도로 침수
“사전예방 행정조치 필요” 지적
시 “관련부서 전역 정리 실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쏟아지자 도로 곳곳에 쌓여있던 낙엽이 배수로를 막아 길이 잠기면서 시민 불편이 이어졌다. 5일 본격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일 오후 6시 20분쯤 기슭적인소나기가 쏟아진 춘천시 은의동과 퇴계동, 삼천동 일대 배수로가 낙엽으로 막혀 이 일대 도로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원기상청에 따르면 3일 오후 7시 기준 춘천과 화천, 횡성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렸다. 지역별로는 철원(마현) 25.0mm, 원통(인제) 22.0mm, 양구 20.5mm, 해안(양구) 19.5mm, 오색(양양) 18.5mm, 춘천은 8.1mm다.

춘천의 경우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낙엽에 막힌 배수로로 인해 춘천시내 곳곳이 물바다가 됐다. 인근 상가를 이용하기 위해 잠시 차를 대려던 시민들이 침수된 도로를 보고 운전대를 틀렸고, 귀가하는 자녀들을 맞이하려고 나온 주민들도 갑자기 생긴 물웅덩이를 피하려 자녀들의 손을 잡아줬다.

보다 못한 시민은 낙엽으로 막힌 배수로를 직접 정리하기도 했다. 은의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낙엽으로 막힌 배수로를 우산으로 찢어서 뚫어보려했지만, 쉽지 않자 맨손으로 맨홀 주변에 쌓인 낙엽을 치우기 시작했다.

A씨는 “온통 떨어진 낙엽이 배수로에 짹짹 들어차서 물이 안 빠진다”고 말하며 “배수구가 막히면 누가 치우냐”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인근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중인 40대 B씨는 “가을에는 떨어지는 낙엽이 배수로를 막아 도로에 물이 차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시청이 바쁜 건 알겠지만 주기적으로 낙엽 치우는 작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러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정경옥 춘천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시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이런 현상은 늘 있었기에 사전에 예방해야 하는데 행정이지재리 결함이다”라고 지적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현재 자원순환과, 도로과, 생활민원사업소 등이 나서서 춘천시 전역에 있는 낙엽정리를 실시중이고, 가을이라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계속해서 치워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재혁 jhpp@kado.net



지난 3일 낙엽이 배수구를 막으면서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춘천시내 도로 일부구간이 침수됐다.

강원도민일보

2023 11 06 ()

/ 19

간호대 정원 확대, 처우 개선 병행 마땅

-업무여건·급여등상향돼야지역 의료기반 안정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더불어 간호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를 열고 지역 의료기관의 간호사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입학 정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의료진 확충은 날로 악화하는 지역 의료기반을 안정화하기 위해 미루어서는 안 될 현안입니다. 특히 간호인력은 의료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정원 확대가 절실합니다. 하지만 간호사에 대한 처우가 만족할 수준에 이르지 못해, 이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원 확대와 함께 간호사들의 업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이 병행해야 합니다.

간호인력양성은 꾸준히 진행돼 왔습니다. 정부는 지난 16년 동안 간호대 입학 정원을 2배로 늘렸습니다. 2008년 1만 1686명이던 정원이 2023학년도엔 2만 3183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2019학년도부터는 입학 정원을 매년 전년 대비 700명씩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는 간호대 정원이 100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 수급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구 1000명당 임상 활동 간호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평균 8.0명에 절반 수준

인 4.94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에도 인구 1000명당 임상 간호사 수가 4.55명으로 가장 많은 간호사 수를 기록한 광주 6.94명과 2.39명 차이가 났고 전국 평균이 4.94명보다 낮았습니다.

도내 간호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증원은 찬성하지만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노동여건과 급여 등 처우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실제 전국적으로 퇴직한 국립대 병원 간호사 10명 중 6명이 입사한 2년 이내에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 공공의료의 중심축인 국립대 병원 간호사 상당수가 입사 후 짧은 기간에 퇴직하는 데에는, 처우 불만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립대 병원 노조에 따르면 인력이 항상 부족한 상황에서 일반 종합병원과 임금 차이나 총원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처우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정원이 확대되더라도 지역 간호인력 부족 상황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간호사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전향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지역 공공의료기관 간호사 처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11 06 ()

/ 19

오색케이블카 '경제·환경' 두 토끼 잡길

-41년 숙원 사업 20일 착공, 예산 등 차질 없어야

양양 주민과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오는 20일 첫 삽을 뜬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환경보전 주장이 팽팽히 맞서 추진과 중단이 반복됐던 공사가 41년 만에 착공하게 돼 남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전국적인 이목을 끈 사업인 만큼, 착공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중앙 부처·관계기관장과 김진태 지사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케이블카가 양양 등 영동 북부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산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공사와 운영 과정에서 이런 염려를 불식시키고, 대한민국을 대표할 관광 콘텐츠로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 대선 1호 공약입니다. 역대 정부를 거치며 사업 추진과 보류, 재추진 등 적지 않은 부침을 겪어왔으나, 지난 3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승인을 시작으로 8개월 만에 주요 행정 절차를 끝냈습니다. 사업 구간은 양양 서면 오색리에서 설악산 끝청까지 3.3km입니다. 완공 목표는 2025년입니다. 총 사업비 1172억원이 투입됩니다. 현재 양양군은 공사 업체 선정을 위해 원가

산정 등 내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설악산 정상인 대청봉에서 직선거리로 1.5km 떨어진 끝청은 등산로로 걸어 올라가면 1시간 30분 가량 걸리지만, 케이블카를 타면 15분여 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개통하면 사계절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산을 오리지 못했던 고령층과 장애인들은 웅장한 설악의 아름다움을 불편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한국 자연의 절경을 소개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색케이블카가 지역 경기를 이끌기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케이블카 입장 수익만으로는 효과가 미미할 것입니다. 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교통 접근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더불어 케이블카 이용객들이 양양 읍내에서 체류하며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해안관광지와 연결고리도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양양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과 연계해 영동 북부권 관광산업의 파이를 키울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 환경을 훼손한다는 부정적 인식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 공사와 운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생태영향을 조사하는 작업도 소홀히 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2023 11 06 ()

/ 19

江原日報

지자체 잇단 '서울 편입' 선언, 균형발전 수포 되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 메가시티 구상에 대한 정치권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구리시가 김포시 뒤를 이어 서울 편입을 추진키로 했다. 성남시와 하남시에서도 서울 송파구와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 위례신도시를 중심으로 서울 편입을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광명시의 경우 구로구 인접 철산동 일대에서 서울 편입 주장이 거세다. 김포발 서울 편입 열기가 서울 생활권 도시 전역으로 번지고 있는 형국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난 2일 시청 본관 3층 상황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열겠다”며 “그 결과를 토대로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시를 제외하고 경기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서울 편입에 대한 방침을 내놓은 것은 구리시가 처음이다.

당초 김포의 서울시 편입 주장은 한강신도시 입주 이후 심각해진 교통난 해소에 서울시와 경기도, 김포시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나섰지만 속 시원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속도가 붙었다. 서울시가 단일 주체로 정책을 펼치면 더 효율적일 것이란 기대와 함께 행정구역상 서울시가 갖는 부동산 프리미엄까지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 국민의힘이 적극 호응하면서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이다. 그러나 총선과 맞물린 시점, 서울 편입 이슈가 여당에 유리한 점 등은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

다. 여기에도 행정구역 개편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에 지난한 과정이 불가피하다. 부동산과 교육, 세금 등 풀어야 할 난제가 수두룩한데, 이해당사자들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런 복잡한 문제가 뒤엉켜 있는 사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여기에도 자치단체들의 잇단 ‘서울 편입’ 추진 선언은 국가균형발전을 요원하게 만드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즉, 수도권 쏠림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

수도권 집중의 폐해는 재론할 필요도 없다. 국토의

12%인 수도권에 인구 50%, 상장회사 72%, 예금 70%, 대학·일자리가 몰려 있다. 과밀화된 수도권은 집값·미세먼지·도시열섬 고통에 시달리고, 청년들이 빠

구리시, 김포시 뒤를 이어 추진키로

정치권, 총선 앞두고 ‘메가시티’ 구상 활발

수도권 산업·인구 분산시키는 일부부터 해야

져나간 지방은 읍·면·동의 40%가 30년 내 소멸될 것으로 예고됐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대거 옮겨진 2011~2015년 수도권 인구 집중이 하락·둔화됐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단의 근본 처방이 없으면 수도권과 지방이 공멸할 수 있다. 때문에 행정구역 개편은 장기적 안목을 갖고 치밀하게 추진돼야 한다. 졸속으로 분위기에 편승해 진행할 일이 아니다. 진지한 연구와 검토, 심도 있는 검증과 토론이 수반돼야 한다. 우선적으로 추진할 일은 수도권 내에서 서울의 면적을 늘리는 게 아니라 지방을 발전시켜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과 인구를 국토 공간에 정상적으로 분산시키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포기할 수 없다.

江原日報

2023 11 06 ()

/ 19

글로벌대학, 준비된 도내 대학들이 선정돼야 한다

교육부의 '글로벌대학' 발표가 임박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심사를 마치고 글로벌대학위원회 등과 발표 일정 및 방식 등을 조율하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예비지정에 선정된 대학 중 10곳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도내에서는 강원대·강릉원주대(공동 신청), 연세대 미래캠퍼스, 한림대 등 4개 대학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빠르면 이번 주중에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내 4개 대학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2024학년도부터 본격적인 학령인구 절벽이 시작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지역 대학 지원사업인 만큼 글로벌대학으로 지정돼야 대학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2024학년도 정시 모집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글로벌대학은 혁신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끌 지역 대학 30곳을 2026년까지 뽑아 학교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대규모 지역 대학 지원사업이다. 지방 대학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비수도권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올해는 10개 대학을 지정해 본격적인 정부의 지원이 시작된다. 강원대와 강릉원주대는 춘천, 원주, 강릉, 삼척 4개 도시 캠퍼스를 특성화해 지역 수요 중심의 고등교

육 재구조화 시스템 완성을 목표로 내놓았다.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원주에서 육성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중심의 지·산·학 생태계 구축을, 한림대는 인공지능 기반 선진 교육 시스템으로 융합 클러스터와 두뇌집단형 글로벌대학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지역 발전과 긴밀한 사안이어서 지역사회에서도 올해 반드시 최종 선정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지역인재 양성에서부터 지역 정주까지를 겨냥한 교육발전특구 정책 및 글로벌대학 사업을 골자로 한 교육 개혁 전략과 개성을 살리는 지방 주도의 특화발전 전략은 지방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글로벌대학 선정은 도내 대학들이 지방 대학 소멸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지역 대학들은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취약한 재정 등으로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 또 지역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역시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험이 커지는 실정이다. 대학과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글로벌대학 지정에 도전장을 던진 배경이다.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 안 되면 다음에 선정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도 정치적 고려보다는 사업 취지에 맞게 준비된 도내 대학에 힘을 실어주기를 바란다.